

화순오성초, 화순문화원과 함께 “우리 지역 아름다움에 취하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이야기’ 교육 실시 향토사 교육으로 학생들의 애향심 더해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최연옥)는 지난 22일, 화순문화원과 함께하는 향토사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이야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화순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열두발농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소리와 어우러짐으로써 학생들의 애향심과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 구성되었다.

화순오성초 한아름관에서 열린 이번 향토사 교육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으로만 다루었던 사물놀이, 농악, 강강술래, 난타, 전통무용 등을 직접 공연으로 감상하고 학생들이 체험하는 활발한 교육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본

공연을 기획한 화순주민들로 구성된 화순문화예술단은 남도의 전통 가·무·악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0월1일 창단되었다. 화순군의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로 화순오성초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예술의 미를 함께 공유하였다.

화순오성초 학생들은 더욱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향토사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사물놀이, 농악 등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대해 사전 학습을 전개하였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음악적 감상에서 벗어나 화순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추임새가 덧붙여져 흥을

더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향토사 공연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대문놀이, 개고리 개골청, 덕석놀이, 덕석풀기 등 실제 강강술래 소리에 맞춰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감상과 표현이 함께 나타난 공연이 이루어졌다.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공연이 함께 만들어짐으로써 향토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다.

화순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하고 기획한 공연이기에 낯선 소리 속에서도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또한 우리 지역 화순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 작은 애향심이 더욱 또렷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향토사 교육에 참여한 6학년 이○○



학생은 “낯설게 느껴졌던 국악과 화순의 향토 문화가 재밌게 느껴졌던 순간”이라며, “우리 음악이 갖는 즐거움과 경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연옥 화순오성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지역 화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온몸으로 체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화순을 제대로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 진원초, 사이언스&매스 피크닉 개최



장성 진원초등학교(교장 문제은)는 과학의 날을 맞아 200여명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사이언스&매스 피크닉’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의 재미를 느끼고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레고

EV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닝과 코딩부터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그림그리기와 각도에 따른 체공시간을 비교하는 에어로켓까지 학년군별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과학 및 수학 프로그램이 순환 체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에어로켓’에서는 직접 만들고 바퀴보고 날려보는 등 교실과 운동장을 넘나들며 진행되었고, 중간놀이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야외 데크에서 진행한 수학&과학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성=김수권 기자

고흥 남양초, 학부모회 주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운영



고흥 남양초등학교(교장 구선숙)는 지난 23일(화) 아침, 남양초 학부모회 주관으로 2024학년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의 결식으로 인한 영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의식 변화 위해,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 강조

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날은 남양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2024년도한마음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아이들의 든든한 아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침에 만든 따뜻한 김밥과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였다.

‘애들이, 아침밥 먹고 공부하자!’라는 현수막 문구 아래 캠페인 활동 구호를 ‘아침밥은 보약이야’, ‘규칙적인 생활습관’, ‘지방을 줄여 비만 예방’ 등 다양하게 준비하여 홍보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의식 변화를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함께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아침밥 먹기에 동참한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는 아침을 잘 먹지 않아서 오전에 기운도 없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안됐는데 아침밥을 먹으니 푹푹해지는 기분이 들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양초 학생들이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청, 전남교육 홍보역량 강화 연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8~19일 2일 간 유태마리나호텔&리조트(여수)와 신안 비치호텔(목포)에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 역점 시책인 ‘글로벌 미래교육’ 실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마을 등 전남교육 현장에 관심 있는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강연과 소통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전남교육청 김학주 홍보담당관이 ‘전남교육

정책과 홍보의 이해’를 주제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강의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유튜브가 강사로 참여해 연수의 질을 높였다. 구독자 4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는 바바프로덕션 김현우 대표는 ‘유튜브 등 영상 홍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소통 한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홍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희면 기자

해남 북평초·북일초, 아우름 교육과정 창의융합한마당 실시

해남 북평초등학교(교장 백현영)와 북일초등학교(교장 김을용)는 24일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북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창의융합한마당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 3년째 함께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아우름 교육과정(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로 과학 OX 퀴즈 대회를 시작으로 다빈치 헬리콥터 만들기, 물로켓 날리기, 알록달록 스텐실 체험 등의 12개 부스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부터 함께한 북평초와 북일초의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아우름 교육과정의 이름으로 총 7회 운영할 예정이며 작은 학교의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백현영 북평초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 수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탐구 활동을 더욱 즐겁게 배우고 자신의 꿈을 찾으며 성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